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김혜미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105호

2면 대학
일체형 책걸상, 앉는 것조차 고통이다
교내 길고양이, 공존할 수 있을까?

3면 사회
성공적인 진로 설계, 학생성공지원과 바로 이용하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업 호황…지역 인쇄 업체는?

5면 보도
도로 위 공유 킥보드 무법지대, 교통 사각지대 해결될까?
과제에 생성형 AI활용, 약일까? 독일까?

6면 인터뷰
전통을 잇는다: 강릉 전통 자수의 향연과 김순덕 자수장의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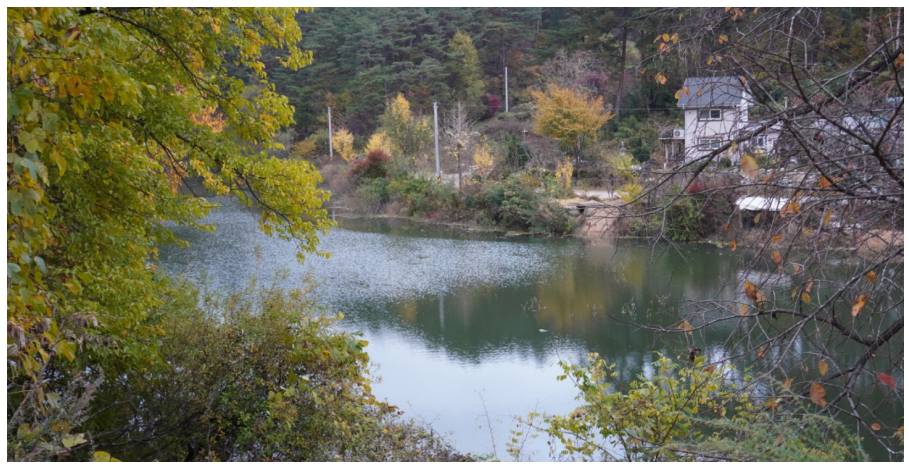
7면 특집
딥페이크 범죄로 얼룩진 대학가 … 대책 마련 시급해

글로컬30 현장 연계형 캠퍼스 적응 프로그램

신입생 대상 '각양각색 (왁자지껄)'… 함께 즐기며 성장하자







▲인문대학 학우들이 죽헌저수지 풍경의 바우길 11구간 '신사임당길'을 걷고 있다. 사진=김도현

우리 대학은 2026년 강원대와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글로컬30 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양각색'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 786만3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신입생 수에 비례하여 단과대학에 각각 지급되었다. 학생복지과 유서구 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간 대학 생활을 공유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로 탐색 활동도 전보다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밝혔다.

함께 걸어요! 강릉 바우길

11월 11일 우리 대학 개교기념일을 맞아 인문대학 행정지원실 주최 아래 '인문대 학장님과 저수지 걷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총 50명의 인문대 학우들이 참여해 인문대 학장님과 강릉 바우길 11구간을 함께 걸으며, 그간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풍경을 즐기고 학우들 간의 우정을 도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바우'는 강릉 사투리로 바위를 뜻하며, 바빌로니아 건강의 여신 '바우(Bau)'에서 따온 말이다. 총 17개의 트레킹 구간, 238.7km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 바우길은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부터 시작해 안반데기 윤유길에서 끝이 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대학 해람지에서 출발해 죽헌저수지와 오죽헌을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코스이자 '신사임당길'이라고 불리는 11구간을 걸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빛나 학우(중어중문학과 24학번)는 "선배들과 같이 걸으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바우길 걷기라는 좋은 행사가 있어 참여했다. 이번 기회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선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있다면 고민 않고, 참여할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바우길 걷기… 기획 의도는?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만남이다. '멘토-멘티' 형식으로 구성된 토크 워킹의 방식을 통해 신입생은 선배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도움을 얻고, 재학생은 신입생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학우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과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동기,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중어중문학과 최일의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1시간 반 정도 지변저수지를 걸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재학생과 신입생 간의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문대학 숏폼 제작 경연대회

인문대학에서는 '인문대 학장님과 저수지 걷기'뿐만 아니라 12월 7일 숏폼 제작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된 숏폼들을 인문대학 비대위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좋아요 개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추후 인문대학 학장을 포함한 교수진의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시상식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백월의 마지막 밤

예술체육대학에서도 11월 19일 '백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소규모 축제를 진행했다. 각 학과별 부스를 운영하고, 동아리 축하 공연 등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별 특강을 진행해 각 학과 관련 강의와 교수님과 함께 진로상담을 가졌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특강 교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

강원 FC 홈경기 직관

사회과학대학에서는 11월 23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원 FC 홈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우들이 흥미를 지닐만한 스포츠 경기를 직관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선배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만혜 학우(경영학과 24학번)는 "선배들과 같은 수업을 듣지 않다 보니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이전보다 친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행사 덕분에 학교생활에 많은 활력을 얻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단비' 같은 인연을 '위하여'!

자연과학대학은 11월 14일 인문대학과 함께 연합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축구, 발야구 등 학우들에게 인기 있는 8개의 스포츠를 선정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도 나누어주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특별히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신입생과 저학년 위주로 선별했다. 신입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타 학과 학생들과 교류하고, 선배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대-공대 왁자지껄: 신입생 Festival

생명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11월 20일 대운동장에서 연합 줄넘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신청자를 받았다. 대회 방식은 5인 단체 줄넘기 도전으로 남자는 총 15개, 혼합·여성은 총 10개를 성공하면 상품으로 목도리와 모자를 증정했다. 또한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신입생이라면 싸이버거 세트와 경품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각양각색 (왁자지껄 프로그램)

치과대학과 과학기술대학, 보건복지대학은 '각양각색 (왁자지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치과대학에서는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교내에 있는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습실 탐방 및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은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에 진행할 실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됐다. 12월 12일에는 견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과학기술대학은 11월 13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롯데시네마 무실점을 방문해 '아마존 활명수'를 관람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상영관 1관을 대관해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보건복지대학 또한 11월 12일 신입생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동화마을 수목원에 방문하여 약 2시간 정도의 트레킹 시간을 가진 후 점심식사를 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강원대와 통합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학교는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각양각색'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행사와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각 학과 생활과 학교에 애정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김도현 기자

일체형 책걸상, 앉는 것조차 고통이다

일체형 책걸상은 거리 조절이 불가능해 자기 신체 크기에 맞춰 사용할 수 없고, *'요추전만 자세'가 아닌 일자 자세만 가능하기에 수업에 집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과서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항상 걸터앉는 자세로 인해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일체형 책걸상은 몸과 책상 사이의 거리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그로 인해, 체형이 달라도 정해진 규격에 앉을 수밖에 없어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다.

*허리를 C자 모양으로 유지하는 자세다. 요추전만 자세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일체형 책걸상은 의자에 책상 판이 붙은 형태와 책상 판과 의자를 철제 프레임에 결합한 형태가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로 인해 대학의 정원이 대폭 늘어났지만, 학생 수용을 위한 강의실 증설은 한계였기에 일체형 책걸상 설치가 불가피했다. 일체형 책걸상은 분리형 책걸상에 비해 도난 방지성과 저렴한 가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정된 형태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초래해 '현대판 고문 기구', '고정된 감옥' 등의 수식어가 붙을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허리가 비명을 지른다…일체형 책걸상의 역설

일체형 책걸상을 사용할 때 필기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구부린 자세를 취하면 목과 허리의 디스크가 탈출해 끊임없이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디스크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 정자세로 앉기 위해서 의자와 허리를 맞닿은 채로 곧게 펴야 하지만, 굽어진 자세를 취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등 방사통을 초래한다.

우리 학교에서 교양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인문대학(C2) ▲사회과학대학(C1) ▲교육지원센터(C9) 등에 대부분 일체형 책걸상이 배치되어 있다.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세를 수없이 바꾸거나 허리를 두들기는 등 일체형 책걸상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연대의 일체형 책걸상은 의자에 책상 판이 붙은 형태이다. 또한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일체형 책걸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수차례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전민지 학우(철학과 23학번)는 "개개인의 다양한 신체 구조를 고려한 것이 아닌 관리 유용성을 중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 사이 간격 조절뿐만 아니라 높낮이 조절도 불가능해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다. 또한 조별 활동이 있을 때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체형 책걸상을 옮기기 불편해 조별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에 지장이 간다."라고 했다.

다른 학교의 현황은?

작년 3월 경북대학교 신문과 올해 6월 동국대학교 신문에서도 일체형 책걸상으로 인한 불편함과 답답함을 토로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낡은 것은 바꿔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 실제 이를 새롭게 교체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부터 바퀴가 달린 일체형 책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일명 '노드'라 불리는 이 책걸상은 책상의 깊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고, 필기할 때 편한 위치로 움직여 사용할 수 있다. 의자 아래에는 개인 수납공간이 있어 기존의 일체형 책걸상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다.

일체형 책걸상 배치의 도입 취지는 좋았을지라도 학생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 쓰임의 가치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는 수업 환경의 편리함을 가장 우선해야 하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논의를 열어 개선해야 한다.

김민수 기자



▲C1 - 107호 강의실 일체형 책걸상 사진=김민수



▲'일체형 책걸상 노드'의 사진 사진 제공=프론티어 코리아

교내 길고양이,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



학생 커뮤니티서도 논란, 길고양이 문제 수면 위로

우리 대학 캠퍼스는 오랜 기간 길고양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월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인기 게시물로 등록된 "기숙사 주변 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에서도 학생들 간의 의견차이가 드러났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캠퍼스에서 고양이를 보는 것이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준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밤늦은 울음소리와 쓰레기 훼손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길고양이 개체 수 역시 주요 쟁점이다. 교내 전역에서 관찰된 길고양이는 학생생활관 솔향관(D8) 5마리, 공학대학(N11·N12) 1마리, 예술체육대학(C10·C11)에 4마리, 총 약 1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일부 건물(기숙사, 예술체육대학)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료 제공, 중성화 수술 등 교내 구성원들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리가 자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 때문에 중성화를 완료한 고양이의 수 보다 증가하는 개체 수가 많은 점 등의 한계가 뚜렷했다.

우리 대학 고양이의 하루를 관찰하다

실제로는 길고양이와 학내 구성원이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지, 하루 간 기숙사 인근에서 고양이를 밀착 취재했다. 고양이들은 해가 떠있는 시간대에 솔향관 앞 편의점 나무 데크 주변에서 쉬거나 간이 배식대에서 먹이를 섭취했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를 보는 학우들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곧 시선이 익숙한 듯 생활을 이어갔다.

한편,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달리 고양이들은 해가 진 시간대에 기숙사 앞을 떠났다. 기자가 명진관 기숙사 사무실에 확인해본 결과 "학생들이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차유빈 학우(철학과 23학번)는 "기숙사에 살며 오히려 사람들이 기숙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불편함을 겪은 적은 있어도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솔향관 청소 담당 직원은 "고양이가 음식 냄새를 맡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아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공존 위해선 관리 필요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은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쓰레기 봉투 뜯기,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문제의 해결에는 근본적으로 개체 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암컷 고양이는 생후 6개월 정도면 새끼를 낳을 수 있기에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면 개체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말하며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영역 다툼, 먹이 부족 등의 문제가 생겨 기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봉투를 뜯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가 고파 쓰레기 봉투를 뜯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다.

교내 중성화 수술, 2024년 단 한 건뿐

하지만 우리 대학 내 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 비율은 저조하다. 수술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고양이의 수는 한정되어있다. 강릉시청 축산과 최윤아 주무관은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 해에 주소지 당 한 마리의 고양이만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 기숙사 솔향관에서 한 건의 중성화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는 교내 길고양이 대상의 중성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문대학에서 한때 길고양이를 비공식적으로 돌보던 조교는 "사료 등 평소 관리를 위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다. 크게 돈이 들어간 일이 있다면 중성화 수술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더 나은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지만,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중성화 수술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확인해본 결과, 대학에서는 중성화 수술 지원 등 교내 길고양이 관리 목적의 재정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내 길고양이, 공론화 통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단순히 감정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주제다.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문제를 넘어, 캠퍼스 생태계와 구성원들의 생활권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영역동물인 특성상, 이미 교내에서 정착한 고양이 외에도 터전을 찾는 고양이가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한다. 우리 대학은 오랜 시간 교내 고양이 문제의 해결을 외면해왔지만, 외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외면이 아닌 해결이 필요하다. 교내 고양이가 캠퍼스 내 생태계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세경 기자

성공적인 진로 설계, 학생성공지원과 바로 이용하기

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진로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학생성공지원과'를 운영 중이다. 학생성공지원과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캠퍼스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정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학생성공지원과는 진로취창업지원팀과 학생역량개발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취창업지원팀에서는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역량개발팀에서는 창의, 도전, 소통, 협력, 자기 주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과 활동(체인지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후생관(c4) 1층과 3층에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로 도서관 2층 세미나실로 위치를 임시 이전했다.

진로 설계의 첫걸음, 직업 · 진로상담

졸업 학기에 접어들어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직업 ·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가기 서비스 〉 컨설팅 및 진로 상담 신청 〉 진로/취업상담 순으로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직접 방문, 전화, 하이시스템(전문상담센터 〉 진로·취업상담)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학생성공지원과 진로취업 상담사인 최상철 상담사는 "이러한 간단한 신청 방법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취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취업과 관련된 부분만 상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해서 왔지만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경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를 다녀와서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졸업 전 진로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막막할 때, AI 취업솔루션 프로그램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서는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AI 취업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I 취업솔루션 프로그램의 제공 서비스는 오른쪽 상단 도표와 같다.

이러한 AI 취업솔루션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바로가기 서비스 〉 AI 취업솔루션 프로그램 순으로 하면 된다. 다양한 AI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학생성공지원과의 이점은?

①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서는 시기 별로 운영하는 진로취창업 프로그램과 학생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과 같다.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프로그램 〉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순으로 하면 된다.

자기소개서 서비스	10만 건의 합격 자소서 항목 빅데이터와 최신 E-GPT 기술,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자기소개서 작성/평가/첨삭 서비스 제공
AI 면접 서비스	AI 휴먼 면접관과 다양한 문항에 대한 답변 가이드, 답변 예시 제공
NCS/인적성검사 서비스	대기업 인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E-BOOK/해설 동영상과 공사/공기업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비해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함께 제공
영어면접/회화 서비스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inEAR로 영어 회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 제공

② 다양한 외부 연계 프로그램과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피에스파인서비스] 2024년 하반기 금융권 취업 JOB SEMINAR(잡 세미나), ▲[팀스파르타] 국비 취업 부트캠프 내일배움캠프 등이 있다. 평소 외부 사이트에서 대외 활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학생이라면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학생성공지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성공스토리' 게시판이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기 게시판으로 취업 성공 준비 과정, 직무 소개, 후배들을 위한 조언 등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취업 준비로 인해 고민이라면,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성공지원과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학생성공지원과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체험활동,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직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진로와 취업 고민을 줄이길 바란다.

권혁주 수습기자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업 호황…지역 인쇄 업체는?

노벨문학상 쾌거, '한강 신드롬' 이어져

소설작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여수의 사랑'을 비롯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을 이유로 노벨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강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맨부커 인터내셔널상과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한 쾌거를 이루었다.



▲강릉 G&GO 말글터에 한강 작가의 소설이 진열된 모습이다. 말글터는 강릉 지역의 시민,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운동과 의식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1989년에 백년서점으로 시작해 30년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사진=김혜미

수상의 여파로 한강의 책은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을 통해 100만 부 이상, 한 달 만에 18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본질적인 소설 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4년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 양귀자의 소설 '모순'은 한강 소설과 함께 가장 많이 구매되기도 했다.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 등의 타 작품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CJ대한통운의 10월 도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3% 증가한 바 있다. 특히 도서 물류는 다른 상품보다 여러 물건을 한 박스에 담아 함께 배송하는 '합배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통 도서 권수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도서를 구매한 회원 가운데 2권 이상 구매한 비율이 29.9%로 집계됐다. 인문학 분야의 붐이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즉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출판 업계는 역대 최대 호황을 맞게 된 것이다.

대형서점의 환호성…지역 서점은?

이른바 '한강 특수 효과'는 일부 대형서점과 파주 출판단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10월 17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에 한강의 소설책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겸하는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에 공급하는 도매' 대신, '자사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소매'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수상 발표날인 10일 저녁, 교보문고 도매 주문 서버가 닫혔고, 14일부터는 하루 도매 주문량을 제한하여 지역 서점은 17일까지 교보문고로부터 한강의 저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즉 대형서점에는 한강 책이 원활하게 공급됐지만, 지역 서점에서는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보문고가 독과점 현상의 중심이 된 건 2020년, 도매상 부도 현상으로 인해 교보문고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협의를 거쳐 교보문고가 도매업을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지역 서점과 거래를 하는 도매, 시장 이익을 따르는 소매 중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교보문고는 도의적 책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명목으로 자사 일부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강 작가 도서 판매를 잠시 중단하고 지역 서점 도매 물량을 확대하는 상생 방안을 실행하기도 했다. 한강 작가의 책은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지역 서점이 교보문고에 선입금을 한 채 물량을 기다리고 유통되기까지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독자들이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 주문을 끝낸 시점에야 뒤늦게 판매를 시작한 격이 되었다. 이는 본질적인 출판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이 드러난 사건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인쇄 업체의 침체는 여전해

지역 서점의 어려움에 더해 지역 인쇄소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기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물류센터가 위치한 파주 출판단지는 업체 수와 공급량, 거점이 모두 우수하다. 인쇄소와 출판·유통 업체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찍어낸 책을 곧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짜여 있기에 지역 인쇄 업체가 경쟁력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다음으로 인쇄 업체가 많은 대구 지방은 여전히 찬 바람만 불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는 물론, 대구·경북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상당한 인쇄 물량도 지역 인쇄 업체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이나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쇄 업체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취지인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상생 추구에 어긋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또한, 지역인재 채용은 5%에 그치며 지역 상생을 위한 명목은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인쇄소 협력 등 지역거점 공공기관·민간 기업 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판 업계의 뜨거운 감자 '도서정가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도서 공급 가격을 규정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되었다. 거대한 자본으로 할인율을 높여 대량 판매를 하려는 대형서점으로부터 중소 서점을 지키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과 협상력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하면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2020년 한강의 도서정가제 지지 선언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이익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출발선에 선 창작자들과 작은 플랫폼, 자본이나 상업성 너머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잃게 된다."라며 규모가 작은 지역 서점들과 1인 출판사 같은 중소출판업계의 생존과 활성화를 근거로 도서정가제 지지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도서정가제에서 웹툰과 웹 소설 등 웹콘텐츠를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높이겠다며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여당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 때문에 책을 멀리하게 되는 점, 도서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즉 도서정가제는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강 작가를 포함한 출판 업계, 문학계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으며, 도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도서정가제 폐지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도서·출판업, 상생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필요해

'출판업 역대 최대 호황' 평을 받는 현시점에도 지역 출판 업체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콘텐츠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있고,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도 이번 정부들어 6억 7천만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급의 적절한 분배와 더불어 지역 공원·극장·도서관·서점 등 인프라의 존재는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 한 지역이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 도서·출판업의 발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혜미 기자

‘강릉-부산·대구’ 철도 개통 기대되는 관광 시장



1월 1일, 시작되는 동해선 철도 시대

강릉과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가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국가 철도 공단은 포항-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경북 울진역에서 동해선 철도 개통식이 예정되어있다. 개통일로부터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강릉-부산, 강릉-동대구 간 열차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해선 철도는 열차 탑승 이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ITX 마음 열차가 투입되며 환승 없이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2분, 대구는 3시간 22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KTX 이음 열차는 예정과 달리 철도 공사가 늦어져 2026년에 개통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새롭게 열리는 동해안 관광 시장

동해선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강원도 동해안 시군은 새로운 관광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강릉·동해·삼척시는 기차역과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홍보 대책 등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맞이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경상권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설명회 준비와 관광시설 정비 등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삼척시는 경상권 관광 인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삼척관광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지역 특유의 뚜렷한 사계절 자연경관을 핵심으로 1박 2일 관광코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경북에서도 동해안 관광객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와 영덕·울진군은 코레일과 함께 기차여행 상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이 유사한 강원도 동해안과 차별화하기 위해 관광 휴양 벨트 조성을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 관광 공사와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도심 관광, 미식 관광, 야간 관광 등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 관광의 새로운 관문이 될 부전역 주변에는 관광 안내 표지판과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고, 동해안권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처럼 동해안 지역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체험형 관광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철도 불모지인 동해안에도 고속열차가 생기게 되면서 산업과 관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훗날, 2030년에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된다면 진정한 동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성운 기자

멈추지 않는 e스포츠의 성장, 대학가에서도 인기

멈출 줄 모르는 e스포츠의 성장세

과거 전자오락 취급받던 게임이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가 됐다. e스포츠, 게임을 매개로 사람 간에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이며, 현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감은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해 이어나가고 있다.

e스포츠 리서치를 주로 하는 업체인 '뉴주'에 따르면 2021년 11억 3,700만 달러(한화 약 1조 4,800억원)였던 e스포츠 산업규모가 2025년 약 22억 8,500만 달러(한화 약 2조 9,700억원)로 2배 정도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또 2022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인기 스포츠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발판을 마련했고, 우리 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e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을 단합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e스포츠의 주요 무대, 리그오브레전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 중 국내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다. 국내 리그인 'LCK'에서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포함한 가지각색 뛰어난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여러 후원사와 스폰서를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데뷔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T1의 페이커 선수는 2023년 영국 ‘더 타임스’ 스포츠 부분 파워랭킹 10인으로 선정되어 축구의 리오넬 메시,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2023년에 이어 2024년 월드 챔피언십을 동일 로스터로 우승하면서 총 5번의 우승을 하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워 나가며, 국내 e스포츠 활성화의 주역으로 꼽힌다.



▲페이커 선수를 포함한 T1 선수들은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동일 로스터로 2연속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제공=라이엇 게임즈

대학가에도 퍼진 e스포츠 열풍

이러한 e스포츠는 2030 청년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열풍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라이엇 게임즈와 우리금융 등의 기업들이 후원하는 '2024 e스포츠 대학리그'가 있다. 전국의 여러 대학교가 지역대표 선발을 거치고, 추후 본선에서 맞붙는 형식의 리그로 올해 리그오브레전드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총 24개의 대학이 본선에 올라가 겨루었다.

우리 대학에서도 총학생회 '설화'가 주관하는 교내 e스포츠 교류전이 이루어졌다.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TFT(롤토체스), 오버워치2, FC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과 대표팀끼리 맞붙는 학과 대항전 형식으로 모든 종목의 결승은 12월 2일, 강릉캠퍼스 교육지원센터 C9 1층에서 진행됐다.



▲설화의 주관으로 개최된 e스포츠 교내 대항전

사진 제공=설화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사용된 스위스 스테이지 룰로 진행되었으며, 총 20개의 학과가 참가했다. 8강은 수산생명의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사회복지학과, 회계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경제학과, 치의예과 등이 진출했다. 특히 수산생명의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8강까지 무패로 진출하는 저력을 뽐냈으며, 결승에서는 정보통신공학과가 대기환경과학과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했다.

TFT는 리그전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에 따라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으며, 총 6개의 학과가 참가했다. 총 4개의 라운드로 결승까지 가는 TFT는 3라운드까지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공학과, 회계학과, 간호학과가 생존하였으며, 조형예술디자인학과와 화학신소재학과가 탈락했다. 결승에서는 국어국문학과가 간호학과를 상대로 2:0으로 승리했다.



▲TFT 결승에 참여 중인 학우들의 모습

사진=이준기



▲e스포츠 교내 교류전 우승 학과들이 시상식에서 상금을 받은 모습

사진=이준기

오버워치2는 리그전을 진행해, 상위 2개팀이 결승에 직행하는 방식으로 총 3개의 학과가 참가했다. 전자반도체공학부,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가 맞붙었고, 이중 무역학과가 탈락했다. 전자반도체공학부는 리그전에서 6승 0패를 기록하면서 타 학과(국제통상학과 2승 4패, 무역학과 1승 5패)와는 압도적인 격차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전자반도체공학부가 국제통상학과를 상대로 3:1로 승리했다.

FC온라인은 리그전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에 따라 KBO 플레이오프 시리즈 룰로 진행되었으며, 총 5개의 학과가 참가했다. 수산생명의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법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중 수산생명의학과가 리그전 1위로 결승에 직행하였으며, 패션디자인학과가 리그전 5위로 도장깨기를 하게 되었다. 결승에서는 수산생명의학과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상대로 2:1로 승리했다.

'설화' 이제현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19학번)은 해당 교류전에 대해 "교내 e스포츠 교류전은 2023년 총학생회의 양캠퍼스 교류전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보완할 방법을 계속 강구한 결과물이다. 올해는 교류전이 신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학과 대항전인만큼 상금을 개인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닌 학과 운영회비로 지급하는 점 때문에 학과의 참여율이 당초 기대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이번 교류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 해설진을 모집해 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학과 내 출전 선수들의 스크림(연습 경기)을 통해 학과 간의 교류가 생기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회를 진행하면서 각 학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결하고, 본인의 학과가 탈락하더라도 상대팀이 끝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러한 작용들이 모여, 스포츠로써 긍정적 영향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비쳤다.

이준기 기자

도로 위 공유 킥보드 무법지대, 교통 사각지대 해결될까?

공유 킥보드는 대학 캠퍼스에서 단과대학 간 이동 과정에서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어서 우리 대학의 많은 학우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 중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공유 킥보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 이용자로 인해 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 내부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구분되며 행정처분 등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 349개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중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횡단보도, 일시 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표지, 도로 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도로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책임자(총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가 있다. 학내 도로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하여 캠퍼스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이 임의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릉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캠퍼스 도로 진입 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인 접근이 자유로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단속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밝혔다.

공유 킥보드를 하루 한 번 정도 이용한다는 전재강 학우(환경조경학과 23학번)는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해 "탑승 인원은 준수하고 있지만, 안전모는 잘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공유 킥보드에 부착된 안전모를 사용했지만, 관리 문제로 인해 업체가 안전모 제공을 중단한 뒤로는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 착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말했다.

전재강 학우는 공유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여러 번 넘어져 본 경험으로,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헬멧 착용과 탑승 인원 준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가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지 않는 한 보통 걸어 다닌다"며 위험 회피를 위해 킥보드 이용을 자제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설화'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2회, 경찰과 협조하여 2회 진행한 적 있다. 경찰에서도 도로 통제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인도,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시에서 견인한 뒤 운영사에게 1대당 1만5천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공유 킥보드는 분명히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우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안전 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유 킥보드가 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주 기자





과제에 생성형 AI활용, 약일까? 독일까?

최근 강원권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학습법 및 대학생활 노하우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공모전은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최종 수상자는 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권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화여대, 전북대, 목포대 등에서도 비슷한 공모전이 열려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학습법 및 과제물 작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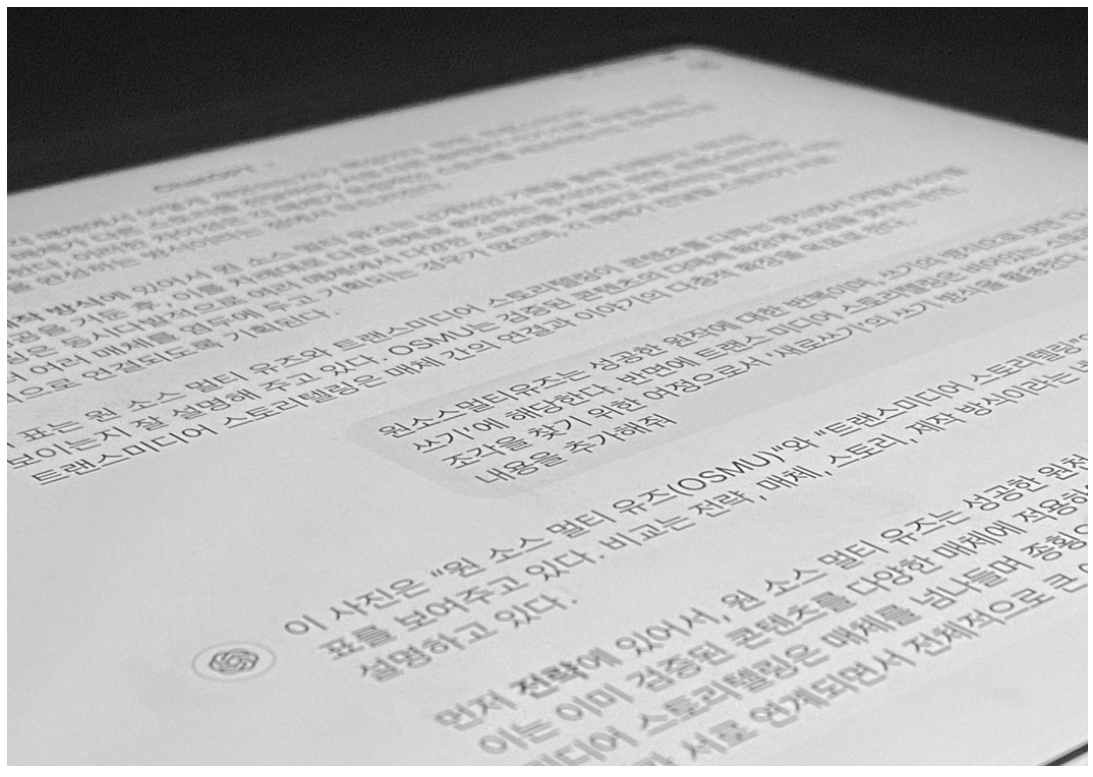
생성형 AI, 이미 입증된 과제 도구?

영국 레딩대 심리·임상언어과학대학 피터 스카프 교수팀은 27일 과학 저널 플로스 ONE(PLoS ONE)에서 실제 학부 시험에 AI 작성 답안을 제출하는 엄격한 블라인드 방식 실험을 진행했다. 챗GPT가 작성한 답안의 94%가 숙련된 채점자들에게도 AI로 작성된 것임을 적발되지 않았으며, 83%의 경우 실제 학생이 작성한 답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보였다. 이 사례는 긍정적 의견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어 많은 대학에서 과제물 작성에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하는 등 AI 친화적 학습 환경을 구축 중이다. 그러나 AI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학과에서는 과제물의 진정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AI가 학생들의 과제물 작성을 대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AI 과제물이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 Chat GPT
사진 제공=unsplash



▲Chat GPT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황보민경

실제로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취재해보았다.

류다훈 학우(건설환경공학과 19학번)는 "생성형 AI를 공학적 추가 설명이나 논문 요약에 활용하며, 수정 후 결과물에 만족하고, 전문적인 의견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며, 주변에서도 많은 학생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혜교 학우(조형예술디자인과 21학번)는 "생성형 AI를 추가 자료 조사와 주관식 서술에서 활용하지만, 완벽한 이해가 부족해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으며, AI의 결과값을 반복 학습해 수정하고 합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학생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희 학우(국어국문학과 21학번)는 "과제 주제를 챗GPT에 문의해 답변을 참고하여 방향을 잡고 작성하며, 가끔 번역 오차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주변에서도 과제, 발표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금지보다 올바른 활용법"

최근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교수들의 시각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손남익 교수는 인터뷰에서 "아직은 학교 내에서 AI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발표나 PPT 제작 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단기적으로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AI에 적응하고 응용하면서 좋은 발전이 될 것"이라며 "과거에도 TV,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AI를 사용한 경우, 도움을 받았음을 명시해 윤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양교육부 허만섭 교수는 "AI 활용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는 상반되며, 금지와 적극 활용 지도가 혼재된 상태다. 부정적 이유로는 AI를 활용한 과제 작성은 과도한 의존 시 창의성, 비판적 사고, 글쓰기 능력 등 기본 역량 저하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AI가 작성한 내용을 거의 수정 없이 제출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교수들의 상반된 입장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역시 "학생들은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익힌 후, AI를 조수처럼 활용해 과제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AI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학, 그래픽 디자인, 영어 텍스트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성을 발휘한다"며 생성형AI의 활용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AI 활용에는 교육적 효과 저하, 공정성 문제 등 윤리적 우려도 존재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AI를 효율적인 도구로 삼아 개인의 역량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말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막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생성형 AI는 과제에서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생성형AI의 활용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대학교(국민 인공지능 윤리강령) ▲세종대학교(생성형 AI 교수 학습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고려대학교(Chat 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중앙대학교(생성형 AI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I가 창의성과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윤리적 기준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이제는 AI 활용의 방향성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새로운 효과를 기대해봐야할 시점이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황보민경 기자



전통을 잇는다
: 강릉 전통 자수의 향연과 김순덕 자수장의 50년

2017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순덕 강릉 전통 자수장은 지난 11월 5일 강릉아트센터 제2전시실에서 전승 발표회를 열어, 반세기에 걸친 자수 인생의 발자취를 선보였다. 이번 발표회는 “강릉 자수 美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강릉 자수의 기원을 되새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전통 자수는 초충도, 강릉 수보, 조각보 및 여의주보 등의 작품을 통해 강릉 양반 여인들의 섬세한 정성과 얼을 찾아볼 수 있다.



▲예림원에서 김순덕 자수장을 만났다.

예림원의 ‘예림’은 김 자수장의 호이기도 하다. 예는 예술을 의미하고 림은 ‘수풀 림’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수를 놓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고 전했다.

“사임당 초서와 초충도를 가지고 수를 놓을 때 어느 정도는 현대적인 재해석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고증을 존중하여 수를 놓는다. 자수는 한 땀 한 땀 정성이 모여야 작품이 완성된다.”

김 자수장은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자수로 재해석한 자수 초충도와 사임당 초서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릉 자수의 전통과 가치를 보여주는 강릉 수보 복원품과 함께, 김순덕 자수장이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며 정성스레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조승우 대한민국 전통 문화유산 수리 기능자의 목조각 사임당초서도 선보였으며, 강릉의 한복 산업을 선도하는 다홍치마(대표: 임정은)에서 김순덕 자수장의 화문 혼례용 강릉 수보를 활용한 생활한복과 한복 가방 컬렉션을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강릉 전통 자수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여생은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

김 자수장은 단순히 작품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후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승 과정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다. 전승 발표회에는 8월 전수 장학생으로 지정된 정다형 전수제자가 초충도 자수 시연을 선보이며, 전통 자수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릉 여의주보의 전승에 매진하고 있는 이성부 전수 제자와 전남 해남에서 활동 중인 이영란 전수 제자가 초충도 작품을 출품해 발표회의 깊이를 더했다.

“자수의 가치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수를 놓는 것에 있다. 이러한 수놓기는 전통 수 기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통 수 기법이란 우리 전통 문화의 원형 그대로 수를 놓는 것을 말한다.”

50년간 전통 자수의 길을 걸어온 김순덕 자수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강릉 자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김 자수장은 자수는 단순한 공예를 넘는다. 자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덕 자수장의 손으로 강릉의 고유한 자수 문화인 ‘수 보자기’와 ‘조각보 작품’이 태어났다.

특히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섬세한 전통 기법을 고수하여 관람객에게 자수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인내와 열정을 전할 수 있었다.

“자수는 평생 가족과 함께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 하나이다. 하나의 자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공든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자수를 통해 행복감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김 자수장은 스승인 성기희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서 강릉의 아름다운 자수를 복원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강릉 전통 자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고유 문양이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한다. 또한, 그녀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자수의 향연은 강릉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김순덕 자수장의 명품 작품들을 감상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강릉 전통 자수의 맥을 잇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릉 자수는 생활용품으로 목걸이, 브로치, 거울 등으로 제작되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자수 사절판과 오절판은 강릉의 다도 동호회 여성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강릉 고유의 수 보자기 문양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아울러 K-culture 시대에 강릉 고유의 미로 외국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강릉의 대표 상품의 역할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주 기자
사진=김동주



▲강릉 수 보자기를 복원한 자수 작품이 공개되었다.



▲ 신사임당 초충도, 초서를 수놓은 작품이 공개되었다.



▲ 김순덕 자수장은 스승인 성기희 교수가 작고하기 전 당부했던 강릉의 아름다운 자수가 전승될 수 있도록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로 얼룩진 대학가… 대책 마련 시급해

대학 동문을 비롯해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지난 10월 30일 나왔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범 박 씨와 공범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피고인에 5년 형을 구형했으나, 검찰은 '죄질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을 감안하여 형사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가해자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이 2천여 개가 넘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61명에 달할 정도로 사건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엄단할 중범죄라는 것을 시사한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심층 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딥페이크는 혁신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출연자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대신,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을 만들어 내보낸 것이다. 딥페이크는 이미지 패턴 매칭 기술로 질병과 암을 진단하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고인이 된 과거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범죄 도구로 전락한 딥페이크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 많이 악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 가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거나 정치인, 유명 연예인의 말과 행동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이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 딥페이크 텔레방 대학 목록 사진 제공=한겨레

유형별 발생 현황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9월 25일까지)으로, 2023년과 비교하여 약 5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한다.



◀사진 제공=경찰청 범죄통계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하 텔레방)을 통해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명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20년부터 해당 대화방이 운영되어 왔으며, 참가자는 1,20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대부분이 인하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었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약 3달 만에 대학에서 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와 인하대 딥페이크 사태 이후 전국 70여 개 대학에 딥페이크 불법 텔레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딥페이크 불법 텔레방 운영이 확인된 대학을 정리한 목록에는 우리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왜 문제가 될까?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령 피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환경에서 유포자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물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은 영구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딥페이크의 범행 대상은 주로 지인인 경우가 많은데, 영상물을 가공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점 역시 큰 문제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나 대책은 미비하다.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그렇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의 합성 및 조작 여부를 구별하여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협력하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삭제 자동화도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배포할 시 최대 징역 7년,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딥페이크 관련 법안도 발의되었다.

지난달 18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한편,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추후 동영상 플랫폼에 대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강화가 권고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서 수사기관장까지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 역시 초·중·고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허울뿐인 대책,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다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것에 비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종합 대책에서 대학 관련 예방 대책은 '인식 프로그램 운영' 단 한 줄에 불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차원에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역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물의 유통과 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텔레그램은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대학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텔레그램이 주로 이용된 것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들을 수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지영 기자

애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휩쓴 수많은 참사들. 무엇하나 유가족의 아픔을 치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그간의 과거들.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벌써 이태원 참사 2주기이다. 세월호는 올해 10주기를 맞이했다. 떠난 이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가 색이 바라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번이나 바뀌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이 무색하게도 막을 수 있던 참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전 국민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이태원 참사를 비웃듯, 바로 작년 오송 지하차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또 발생했던 것이 그 예시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고 직전 18시부터 22시 직전까지 11건의 압사 사건 관련 신고가 용산 경찰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투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1년 전 같은 날 진행되었던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어 인파 통제가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해당 참사 2주 전, 같은 장소에서 지구촌 행사가 진행됐을 때에도 경찰이 투입되어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즉,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태원 상인들이 서울 용산 경찰서 주관 간담회에서 교통통제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결국 안전했어야 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95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유가족들은 묻는다. '놀러갔다가 죽은 것이 말이 되냐, 국가의 역할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모욕이나 조롱이 담긴 2차 가해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유형은 '노골적인 혐오나 조롱 표현',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조작 정보',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성희롱 또는 욕설'이 있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부상자·부상자 가족·목격자·대응 인력·일반 국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심리상담은 모두 7514건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치료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피해자 역시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누적 33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잘못은 분명하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두고 분향소엔 영정사진 하나없이 축제는 모조리 취소한 것, 참사 관련 책임 회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셀 수 없이 많다. 사회적 재난은 사회 곳곳에 트라우마를 남긴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했던 사람들이라면 작게라도 트라우마가 남게 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90년대생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동년배들을 또 잃었다. 정부는 한 세대가 겪은 트라우마의 발현 등 심리적 이해를 시도하지도 않고 '애도'에 대한 고찰 없이 수박 겉핥기식 '애도'만을 한 셈이다. '애도'는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위에 나가는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타인을 만나 교류하는 것, 축제나 노래를 통해 애도하는 것 등 정해진 방식은 없다.

우리나라는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조상들은 이 '한'을 풀기 위해 판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내보기도 하고,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희노애락을 훌훌 털어내 보이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목 놓고 울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애도 방식은 개개인을 넘어 세대마다도 다르다. 아픔을 승화시키는 방식들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허울만 남은 '애도 기간'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건 그 사람의 빈자리는 하염없이 크다.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못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상처의 회복은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에 국가는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끝까지 잊지 않고 북돋아 주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반소정 기자

인문학 연구소 주최 제11회 서평대회 최우수상 작품

협상가의 자질이란 무엇일까?
부제: 《파리 최고의 협상가 켈리에》

국제통상학과 권현희

《파리 최고의 협상가 켈리에》를 쓴 저자의 이름(fullname)은 프랑수아 드 켈리에(Francios De Callieres)이다. 그는 루이 14세의 특명전권공사였으며, 외교와 협상 전문가로 프랑스가 유럽 열강과의 경쟁에서 이기는데 주력하여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다. 전쟁과 갈등이 빈번했던 시대에 외교와 협상의 본질을 몸소 터득한 부분을 자세히 알려준다. 저자는 협상가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세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최고의 협상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협상가의 선발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협상전문가 교육기관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가는 상대방이 처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들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처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들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얼마 가지 못해서 항로를 잃고 헤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숙지는 통로를 헤매지 않게 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가 인상깊었던 구절인데 이는 저자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상대국(상대방)의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이 책은 협상가가 단순한 거래나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해관계와 정보 숙지, 인간의 본성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인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 때의 유럽 외교무대를 활동하며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의 중심을 경험하며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 협상이 단순한 거래나 강압적인 힘겨루기, 협박 등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협상가는 상대방이 처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들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차세대 또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두번째 켈리에는 협상에 대한 개념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협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더 긍정적인 협상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며 협상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감정, 심리,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켈리에는 독자들에게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협상 기술을 전수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독자들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이해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의도이다. 책에서는 협상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로 제시한다. "로앙 공작을 지낸 앙리는 유럽 각국 군주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군주는 국민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예컨대, 상대의 욕망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을 얻거나 상대의 협상 목표를 어긋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협상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로 말하며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며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독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진다.

세번째 어떻게하면 뛰어난 협상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며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켈리에는 뛰어난 협상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협상가의 선발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협상가를 선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국가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강대국 협상에서는 유연함과 비밀 협상에서는 새로운 인물 발탁을 강조하며, 협상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켈리에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정 가득하고 야심 넘치는 이들 역시 적철히 배치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일을 통해서 자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외교를 유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도전도 과감하게 받이들입니다.』라고 말하며 협상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와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가를 양성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 시화전 1등작

쉼표

송성운

오늘도 누군가의 쉼표가 되고싶어
끝없는 기다림을 버티고 버텨내어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린다.

조금씩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움 속
혹여나 잊혀질까 가끔씩 나타난다
언젠가 나를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와준다면 환하게 반겨야지.
쉼표를 온점으로 바꾸어 안아야지.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온 힘껏 잡아야지.

한 컷 속으로



가을 선교장의 전경을 담았다. 지금은 단풍과 은행이 지고 가을은 지나갔지만, 선교장 뒤에 위치한 소나무 덕에 언제 찾아가더라도 푸르른 전경을 볼 수 있다. 3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릉 선교장. 관동팔경을 유람하던 조선의 선비와 제일가는 풍류들이 머물렀던 것처럼, 자연 속의 안식을 찾는다면 방문해 보길 바란다.

황보민경 기자